



2025. 6. 17

KIWOOM ESG Week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시황·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 Weekly Issue

미 상원, 태양광, 풍력 등 IRA 세액공제 폐지 추진

- ✓ 16 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8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안 초안을 공개. 구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액공제를 원래 수준의 60%로 줄여 2028년까지 전면폐지한다는 내용. 한편, 하원 법안과 달리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수력, 원자력, 지열 시설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100%의 세액 공제를 허용한 다음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 해당 세제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 태양광주는 장외거래에서 주가 폭락.
- ✓ 한편,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서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도 해당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 풍력, 지열, 에너지 저장시설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한정(다만,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음). 그 외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억 달러의 세액공제(30D)의 폐지 시한을 2026년 말로 앞당겼음. 또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하였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음.

미 하원, 상원 세제안 내 IRA 세액 공제 혜택 축소 내용

하원	상원
<p>[전기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50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 - 다만, 미국 내에서 20만 대 미만의 전기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에 한해 2026년 말까지 연장 가능 -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달러의 수수료 부과. 202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태양광 및 풍력 등] -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에너지 저장시설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다만,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p>[전기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50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법 공포 후 180일 뒤 종료 -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리스용 전기차에 대해 7,500억 달러의 세액공제는 이달 16일부터 즉시 종료 [태양광 및 풍력 등] -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2028년까지 전면 폐지 - 수력, 원자력, 지열 시설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100% 세액공제 허용한 이후 203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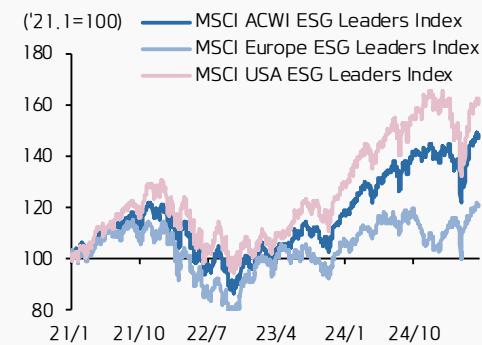
- 당사는 6월 17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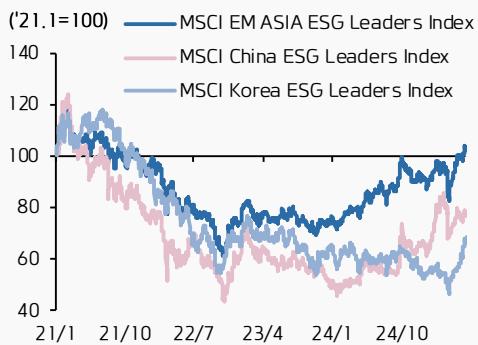
ESG 주요 차트

선진국 MSCI ESG Leaders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신동국 MSCI ESG Leader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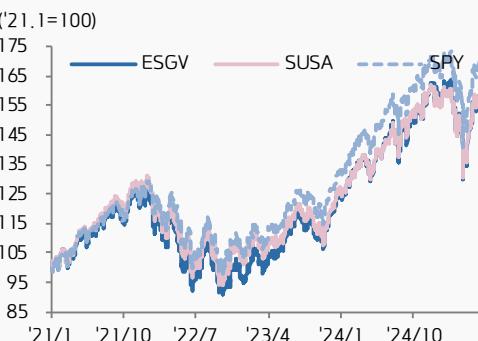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과 이머징 아시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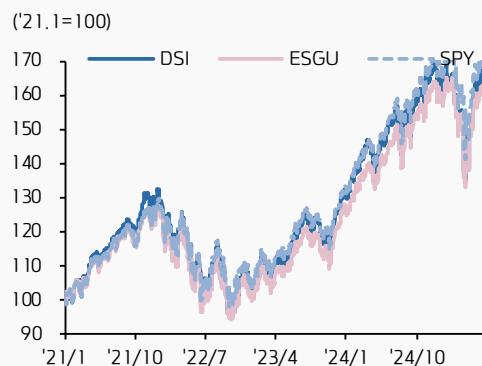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ESG ETF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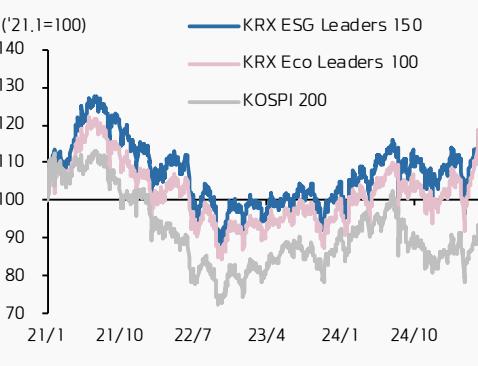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ESG ETF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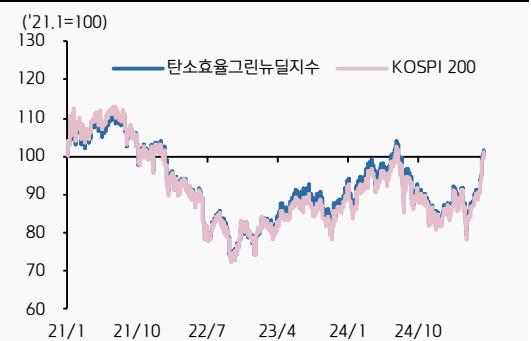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RX ESG 관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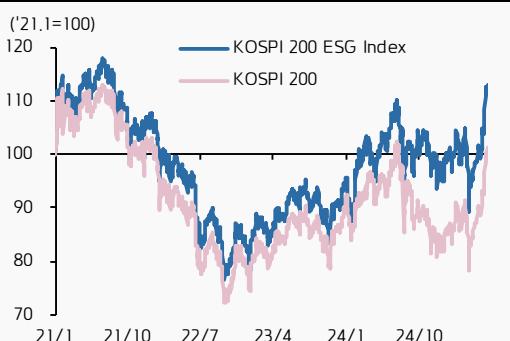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탄소효율그린뉴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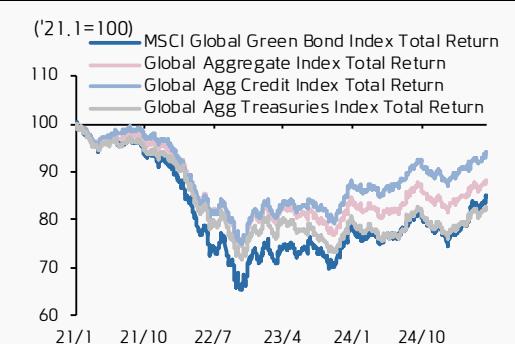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 ESG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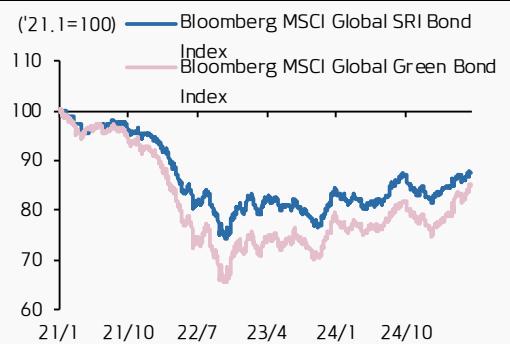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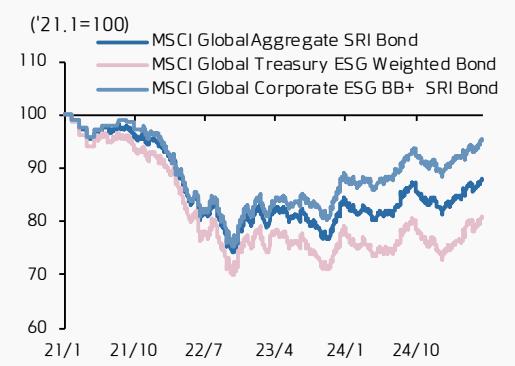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책임투자 / 그린본드 채권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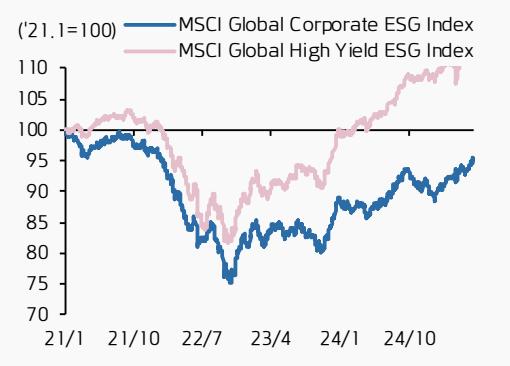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SRI 국채 및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ESG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